



함께하는 인천지부 소식

**소통과 단결로
다시 세우는 인천지부!**

■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김현동 ■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

노동조합 무력화 획책하는 GMTCK 2년 임금 합의 요구 GM자본의 경영행태 규탄한다!

GM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부터 시작된 억지스러운 '2년 합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GMTCK 사측이 24년 임금교섭에서 2년치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26년 임금교섭에서 또다시 2년치 임금 합의안을 들이밀었다.

임금과 성과급은 노동자의 피땀에 대한 정당한 이익 분배다

임금인상 및 성과급 요구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준 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배 요구다. 그런데 사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턱없이 낮은 인상률에 선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은 일단 2년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향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다.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할 따름이다.

목적은 교섭 동력 꺾고, 노조 무력화 하는 것

GM자본이 2년 합의에 집착하는 진짜 목적은, 노동조합의 투쟁 동력을 꺾는 데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교섭을, 격년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만약 사측의 의도대로 임금과 단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27년, 임금교섭이 빠지면 투쟁 동력과 교섭집중도는 크게 떨어져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된다. 나아가 GM은 GMTCK를 발판 삼아 2년 합의 돌파구를 선례로 향후 한국지엠지부까지 압박할 것이다. 사측의 노림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년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간 이견과 내부분열, 이를 통한 노동조합 약화까지 일거양득으로 노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측은 2년치 합의 요구는 조합원의 추가 요구와 미래 교섭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노동조합 힘을 연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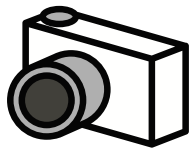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열린 교섭에서 회사의 2년치 제시안을 단박에 거부했다. GMTCK 자본의 2년치 제시는 지회, 지부 뿐 아니라 금속노조 전반을 무시한 행태다. 인천지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배요구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GM자본의 경영행태를 규탄한다. 이에 GMTCK 지회와 함께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힘을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AI와 산업전환, 금속노조 대응 확대간부교육 수련회 참가

인천지부 확대간부들은 지난 9월 15일, 16일 금속노조 단양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수련회에 참가했다.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은 18만 금속노조의 통일적인 정세인식과 과제 수립을 위해 기획된 주요 사업이다. 총 9차수로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 각 지역지부별로 1박 2일씩 결합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수련회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사람 간 소통을 넘어 AI와의 대화까지 확장된 상황에서, AI시대 간부들의 바람직한 소통과 말하기 방식을 고민하는 교육도 진행되었다. 바쁜 일정 속에 참가한 간부동지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었길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인천지부 활동



택시 고공농성 문화제 결합, 드디어 땅을 밟았다

길병원 사거리 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던 택시노동자 고영기. 매주 수요일 열렸던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월급제 완전 쟁취! 문화제에 인천지부도 최대한 결합해왔다. 그리고, 10월 8일 농성 194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TF 구성 및 제도개선을 약속받고 땅으로 내려왔다. 고영기 동지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며, 택시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를 염원한다.



2026.09.19 기후정의행진

뜨거워지는 지구, 세계 곳곳의 기후 재앙들.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노조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다.



2026.09.19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대행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조할 수 없다. 한국군 파병 압력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10월 항쟁 80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민주노총은 5년에 한 번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에서 벌어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다.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은 해방을 맞은 직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패망 후 미군정이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쌀값 폭등과 식량난, 높은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활고를 겪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전국 노동조합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를 부정해 노동자의 요구를 내세우지도 못하게 했다. 참을 수 없던 노동자들은 9월 부산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단행한다. 10월, 대구에서 파업중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이 쏜 총에 2명이 사망하게 되고, 이를 도화선으로 대중투쟁이 불붙었다.

올해로 8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0월 3일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열고 항쟁정신 계승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인천지부도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하루 앞선 10월 2일부터 항쟁순례단을 꾸려 참가했다. 대구의 10월 항쟁 발상지들을 둘러보며 역사를 되새겼다.

